

전주시,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 만든다

317개 자전거 보관대 일제 정비 · 이용시설 점검 · 3월부터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전주시가 자동차에 빼앗긴 도로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생활교통환경 만들기를 본격화한다.

전주시는 봄철을 앞두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관련 시설을 정비하고,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과 시민 무료자전거 교실을 운영하는 등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시민들의 생활 속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먼저, 시는 자체 관리하는 자전거 보관대 317개소(2817대)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노후화되고 파손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보관대를 정비하기로 했다.

시는 자전거보관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오는 3월 말까지 노후화되고 훼손된 거치대는 수리하고, 파손이 심한 거치대는 철거 후 재설치할 계획이다.



한-베트남 대학 상호 교류 협약 체결하는 모습이다

한-베트남 대학 상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모습이다.

한예정이다.

시는 그간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자전거 안전교실을 올해부터 일반 시민까지 대상으로 확대하고, 전문 교육 강사를 활용한 이론 및 실기교육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구상이다.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나 택시 등 운수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는 생활 속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원광대학교는 베트남 빈즈엉대학, 호찌민외국어정보기술대학교와 상호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김도중 총장이 빈즈엉 대학 측과 업무협약을

을 위해 상·하반기 자전거 대축제를 개최하는 등 자전거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시민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자전거정책과를 신설했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탈 수 있는 자

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 등 다각적인 접근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전거타기 운동본부 전주 지부(총합경기장 내)도 자전거를 배울 수 있도록 오는 3월에서 6월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오후 2시~4시) 주 5일간 시민 무료 자전거교실을 운영한다.

/김영재기자

공무원 외부 강의 관련 규정 · 체계 마련

도교육청, 4급 이상 공무원 시간당 강의로 30만원 · 5급 이하 20만원 초과할 수 없어

전북도교육청은 공무원 외부 강의 등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23일 도교육청이 마련한 외부강의 등 관리체계 방안은 유초중고 학교장 장학관, 4급 이상 공무원은 시간당 30만원의 강의를 초과할 수 없다. 5급 이하의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금액은 원고료 등 일체의 대가를 포함한 것이다.

또 외부 강의를 하고자 할 경우, 요청 명세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인 때는 제외된다.

외부 강의 횟수도 제한된다. 대가를 받는 모든 강의, 발표, 토론은 월3회

또는 월 6시간으로 제한된다.

부득이하게 이를 초과해야 할 때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외부 강의료가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외부강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주의 또는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매년 실태 분석을 통한 관리와 각급 기관에 홍보할 계획이다.

/정해은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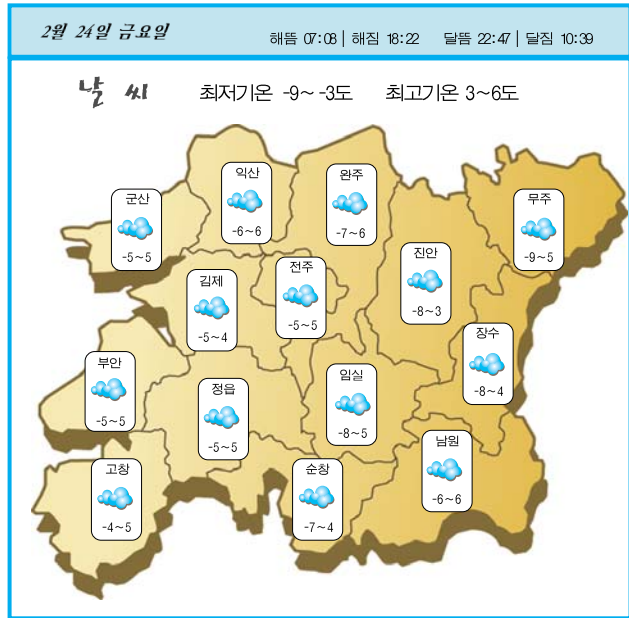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센터장 염귀녀)는 실효성 높은 청소년 정책개발과 이행을 위해 청소년참여활동 전반에 참여할 제9기 전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

전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전주시청소년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기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로 모집대상은 만 6세~24세 사이의 전주시 거주 청소년이며, 모집기간은 오는 3월 15일까지다.

센터는 서류전형에 이어 면접심사를 거쳐 총 20명 내외의 전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김영재기자



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성 물질 검사

상·하반기 수산물 공급업체 48곳 대상 진행

전북도교육청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식재료가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해에도 상·하반기에 식재료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는 학교급식 수산물 공급업체 48곳을 대상으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전 유통단계에서 수거해 진행한다.

대상 업체는 HACCP 시설인증 업체 25곳, HACCP 제품 공급 업체 23곳 등 총 48개 업체다.

시설인증 업체는 업체별 2품목씩 연 2회, 제품 공급 업체는 업체별 2품목씩 연 1회 각각 검사한다.

검사 품목은 오징어, 고등어, 동태, 꽂지, 임연수어, 대구, 멸치 등 19개 품목. 검사는 도교육청과 보건환경연

구원 담당자가 시료를 수거해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한편 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14년 5월에 설치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 방사성 물질 안전위원회'는 오는 4월 말 운영이 종료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급식 방사성 물질 안전위원회 운영이 4월 말로 종료된다"면서 "이 위원회에서 하던 일은 5월부터는 학교급식위원회에서 맡게 된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전북과학교육원, 익산에 '새 둥지'... 5월 개원

전북과학교육원이 익산시 일원에 제2의 과학 붐 조성을 위한 둥지를 새롭게 틀고 있다.

23일 전북과학교육원(원장 국강욱)은 총 442억원을 투자, 익산 부송동에 부지 3만2,752㎡, 연건평 1만4,547㎡(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이전 신설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기간은 1월부터 3월말까지이며 현재 7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전북과학교육원은 4D체험관, 천체투영관, 천체관측관, 로봇관 등 95종의 10개 전시체험물을 갖추게 되

며 오는 5월 정식 개원을 할 예정이다.

전북과학교육원은 올해 5월 영화와 과학을 주제로 한 체험전 등 총 4차례의 과학문화체험전을 개최한다.

또 5월부터 전북과학교육원내 전시체험관을 운영하며 도내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발명박을 진행한다.

초·중·고학생과 일반인에게 발명특허도 지원한다.

또 초등 3학년부터 중 3학년을 대상으로 창의과학교실을 운영하며 한국학생탐구 올림픽대회도 개최한다.

/정해은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다녀주세요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원천 기성의 '보급자'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